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4. 22.(목) / 총 4매	
담당 부서	도시재생 역량과	담 당 자	•과장 오공명, 사무관 임현아, 주무관 이남일 •☎ (044) 201-4917, 4918	
	LH 도시재생 지원기구		•단장 김봉준, 부장 이승규, 선임 이기철 •☎ (042) 866-8346	
보 도 일 시		2021년 4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우리 동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

- 운영 사례집 「모두가 행복한 그곳」 발간...도시재생 누리집서 누구나 열람 -

- 태백시 통리 게스트하우스, 영주시 할매 목공장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준공된 공동시설을 주민 등이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이 발간되었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「모두가 행복한 그곳」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.
-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(이하 도시재생 시설)이란,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놀이터, 마을회관, 마을 도서관,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.
-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시설의 우수 운영사례를 지자체, 주민공동체 등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사례집 발간을 기획하였다.
- 이를 위하여,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로부터 도시재생 시설을 주민 등이 참여, 운영하는 사례를 신청(20.6~8월) 받았다. 이후,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실사(20.10~11월) 등을 통하여, 조직 운영, 시설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6곳 중 7곳의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였다.

□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모두 7곳으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태백시 통리 게스트하우스



○ 지자체가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폐업한 숙박시설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재탄생한 숙박시설이다.

- 조례로 숙박비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객을 유치하는 한편, 운영자에게는 무상임대로 운영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.

② 서울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



○ 공동부엌과 카페, 취미활동, 어린이 돌봄 공간, 주민 교육장 등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.

-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시설을 완공하여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일찍부터 시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돋보였다.

③ 경북 영주시 할매 목공장



○ 목과 두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시설로, 지역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역량을 키워 운영하고 있다.

-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, 지역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에 선정되었다.

④ 대구 서구 희망공작소



- 20여 년 전에 폐쇄되어 방치된 수도 가압장을 허물고 신축한 공동이용시설로, 주민들을 위한 공방으로 이용되고 있다.

- 목공 교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, 공작소가 주민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의 거점이 되어 우수사례에 포함되었다.

⑤ 부산 서구 마을빨래방



- 주거환경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된 마을 공동 세탁공간이다.

-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, 주민협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.

⑥ 제주 김영수 도서관



- 50여 년 된 초등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, 낮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저녁과 주말에는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.

- 주민의 생활환경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과,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타 지자체와 공유할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.

⑦ 전남 순천 창작예술촌



- 순천 원도심에 조성된 시설들로, 3곳의 전문예술인 거점 스튜디오(1~3호)와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(4호)로 구성되어 있다. (사진은 4호 장안 창작마당)

- 전문 예술인부터 주민까지 부담없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(1호~4호)을 조성·운영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례라는 평을 받았다.

□ 사례집은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,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(www.city.go.kr)에도 게시되므로 각 사례별 상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오공명 과장은 “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, 주민, 지역 도시재생조직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

- “이번 사례집이 시설을 운영하거나,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, 주민 그리고 도시재생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역량과 임현아 사무관(☎ 044-201-4917), LH 이기철 선임(☎ 042-866-834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